

“천원 잡지 한권으로 따뜻한 세상 주고 받아요”



현 잡지 모아 판매, 이웃 돋는 ‘포매거진’ 임지영 대표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로 어려운 이웃을 돋고자 시작한 것이 ‘포매거진’이에요. 버려지는 잡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팔고, 이 돈을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것이죠. 기부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참여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구를 위한 매거진, 천원잡지’라는 목표로 지난 1월 포매거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거리마다 들어선 카페, 이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수많은 잡지가 비치된다. 시간이 지난 잡지는 대부분 새로운 잡지에 자리리를 내어주고 버려지기 마련이다.

임지영(25) 대표는 누군가에게 유용한 잡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냥 폐지로 버려지는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카페에 다니며 지난해 잡지를 그냥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냥 폐지로 버리죠. 한번 더 생각해보면 분명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이 아까워어요. 혹시나 해서 카페 사장님들께 버려려면 제게 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걸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 대표는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잡지를 수거했다. 버려질 잡지를 1000원에 팔고 이 돈으

로 어려운 이웃을 돋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자 많은 카페에서 기꺼이 지난호를 건네줬다. 잡지를 사는 사람과 수익금을 받을 사람 모두를 위한 의미를 담아 ‘포매거진’(For magazine)이란 이름도 정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formagazine>)에 취지를 알리고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목록 대부분은 패션잡지들이었다. 비록 지난호지만 워낙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판매목록을 올리자마자 팔려나갔다. 또한 포매거진을 돋고 싶다면 구매에 나선 이들도 이어졌다.

팀원으로 합류한 김정운(25), 채가영(여·23) 씨도 처음에는 구매자 중 한명이었다. 잡지를 수거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혼자서는 벅찬 상황,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찾던 중 친구였던 정운 씨가 들어왔고 이후 가영 씨도 동참하게 됐다.

팀원이 늘어나자 카페는 물론 미용실, 병원 등 버려지는 잡지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수거했다. 약 50원 정도 모이면 인터넷 블로그에 목록을 올리고 판매했다. 잡지가 다양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찾는 이들이 늘었다. 간혹 포매거진 멤버들 활동에 공감한 개인이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경우도 나

타났다. 팀원들은 고민 끝에 더 많은 사람이 택배를 볼 수 있도록 구매량을 10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네트즌들은 1000원짜리 잡지를 받기 위해 택배비 4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돋는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했다.

“처음에는 낯선 카페에 들어가 잡지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또한 팀원들 모두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죠. 추운 날씨에 수거한 잡지를 들고 집으로 향할 때면 고생스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뜻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포매거진 팀원들이 지금까지 판매한 수익금은 40만 원이다. 팀원 모두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열정을 다졌지만 워낙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팀원들이 힘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미있는 곳에 건네기 위해 고심 중이다. 현재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활동은 잠정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그동안 포매거진 활동을 바탕으로 공공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창업을 준비할 생각이다.

“포매거진 활동을 하며 버려질 잡지로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 역시 단순한 창업이 아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조성범 이사장, 공공보건 광주시장 표창



조성범(사진 왼쪽) 우암의료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광주 상무리 초관련에서 열린 ‘공공보건 워크숍’에서 공공보건 시범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동신대 ‘농어촌개발컨설팅트…’ 개설 워크숍



동신대학교 농어촌개발컨설팅트 워크숍이 최근 동신대 신학협력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신대 제공)

담양 청렴동아리 ‘사랑의 김치’



담양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회장 문창석 경사) 회원 40여명은 최근 저소득층 가정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원 김장 나눔



LG화학 나주공장 사회봉사단원(대표 이상연 공장장)과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부 등 총 80여명이 나주공장 내 연수원에서 김장김치를 담궈 전달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박병종 고풍군수, 공무원 분야 신지식인



박병종 고풍군수는 최근 한국신지식인협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22회 신지식인 인증 및 시상식’에서 공무원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인증패 및 메달을 수상했다.

박 군수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 행정 노력을 인정받아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김영식 남부대 교수 ‘대한민국 성공대상’



웃음박사로 유명한 남부대학교의 김영식 교수(수도환경학과,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장)가 11일 국회의사당 귀빈실에서 (사)국민성공시대의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성공대상’의 문화예술분야 수상자로 선정, 수상한다.

김영식 교수는 범국민 웃음운동인 ‘웃음으로 소통하라’와에 학교폭력과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한 ‘어깨동무 웃음콘서트’, 교통문화 선진화를 추구하는 ‘웃음택시’ 교육 등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웃음전파와 소통에 힘쓰고 있다.

/체육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실버다움 문화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11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마지막 ‘실버다움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제10강에서는 장경화(사진) 광주시립미술관 홍보사업과장이 ‘광주시립미술관과 미술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장 홍보사업과장은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 학원 미학 미술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년간 뉴욕 파견근무를 했고, 롤렉터재단 연구기금을 수상했다. 문의 062-613-715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류 ‘담양’ 한류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담양군 10일 “지난 6일 (사)한류문화산업포럼(회장 안대벽)이 주최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류대상 시상은 글로벌시대에 맞춰 한류 문화경쟁력을 고취하고자 학술포럼 및 공연, 시상식이 함께 이뤄진 행사로

담양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예능, CF촬영지 등으로 지역과 한류문화를 널리 알린 점이 높게 평가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담양은 화려한 휴가, 청풍명월, 등 영화와 다모, 1박2일 등 드라마와 예능, CF촬영지로써 널리 지역을 알렸으며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연출되는 영상은 한류문화를 전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호남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정훈현씨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LINC 사업단이 주최한 ‘제5회 산학협력 교류의 날’ 행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정훈현(인터넷콘텐츠학과 4년·시진)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해 해외탐방의 기회를 갖게 됐다.

최근 이를 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완성된 1년간의 연구 성과

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정훈현씨는 창의작품개발부문에서 ‘영상처

리 기반 4축 날개 구동형 무인비행기’로 최우수상을, 이명기(정보통신학과 4년)씨의 ‘순풍작에 의한 모형 자동차의 무선제어’와 김완수(조리과 학과 4년)씨의 ‘산야초를 이용한 서양식단개발’이 우수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해외탐방의 기회를 갖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서해해경 목포항공대 김재진 경위



해양경찰청 최우수 항공대원

서해해경 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김재진(43) 경위가 2013년 해양경찰청 최우수 항공대원으로 선정됐다.

목포항공대 카모프 헬기 기장으로 근무 중인 김 경위는 해상순찰, 응급환자 이송하는 베테랑 조종사로 손꼽히고 있다. 섬 응급환자 이송 등 특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서해상 치안유지에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3월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한 야간 선박 화재시 실종자 수색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집단 계류와 철관으로 무장한 중국어선 단속시 헬기 하강장을 이용해 저항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해·공합동의 타월한 전략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철관으로 배 선체를 두른 일명 ‘철갑선’이 올해 처음으로 서해에 나타난 가운데 헬기의 거센 바람으로 단속을 측면 지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7년 해양경찰에 입용된 김 경위는 345시간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김 경위는 10일 ‘해양 항공대 임무는 밤낮이 없어 놀랄상황이 많지만 우리 바다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파수꾼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부음

▲김완수씨 별세 김영식(금호고속)·영철(길 건축사)·영만(전도사)·영남·영환·미경·미영·미혜씨 모친상=발인 12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윤우중씨 별세 석하·정인·정신·경숙·경애·경희·혜경씨 부친상 김상학·박효명·김동의(전남대의대 주임교수)·정명환(제이에스건설산업)씨

빙부상=발인 11일(수)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070-3373-5956.

▲다음카페-참된 나(?) 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경,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만성난자·금연금주, 암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증 010-6609-9068.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과씨 모친상 강양은(호남신학대)씨

시모상=발인 1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소자씨 별세 지남철(중앙안

교)씨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301호 故정순애 님(여/86세)		301호 故이보광 님(여/87세)	
구/여: 엄귀비/문영순	구성: 최득우, 최복기/김경숙, 김현숙/모해순	구/여: 김은숙/김경래, 정현숙/김경희, 김경숙/김경희	구/여: 김은숙/김경래, 정현숙/김경희, 김경숙/김경희
부/婿: 김민숙/김경숙, 정민숙/김경숙	부부: 김민숙/김경숙, 정민숙/김경숙	부/婿: 김민숙/김경숙, 정민숙/김경숙	부부: 김민숙/김경숙, 정민숙/김경숙
손: 혁경수, 기선	손: 혁경수, 기선	손: 혁경수, 기선	손: 혁경수, 기선
• 호: 실: 201호	• 밤: 12월 11일	• 호: 실: 301호	• 밤: 12월 11일
• 장: 지: 화순 청동 선영	• 연락처: 227-4381	• 장: 지: 운림경자	• 연락처: 227-4382
101호 故오상호 님(남/68세)			102호 故한영우 님(남/99세)
구: 오미자	구: 오미자	구: 한정원	구: 한정원
부/婿: 오승영/송근	부/婿: 오승영/송근	부	